

KIA, 남은 집토끼는 조상우...마운드 전력 유지할까



외인 원투펀치·양현종·이준영 등 재계약 성공
‘A등급 FA’ 보상선수 등 부담…잔류 방향 유력

KIA타이거즈가 새 시즌 마운드 전력 유지에 성공할까.

KIA는 30일 기준 조상우를 제외한 내부 FA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야수진에서는 출혈이 컸다. 내부 FA 6명 중 박찬호·한승택·최형우가 각각 두산·kt·삼성으로 이적했다.

먼저 박찬호의 이적이 빠아웠다. 지난 2019년부터 주전으로 활약한 박찬호는 수비상이 신설된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쥐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욱이 그는 통산 187개의 도루에 성공하는 등 주루 능력도 갖췄고, 타격 또한 준수했다.

주전 유격수를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KIA는 계약제까지 맞았다. 대체불가 베테랑 최형우가 등지를 옮긴 것. 올 시즌 최형우는 133경기에서 144안타 24홈런 86타점 타율 0.307 24홈런 OPS (출루율+장타율) 0.928의 맹활약을 펼쳤다.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점에서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야수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 KIA가 새 시즌 ‘원나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운드 전력은 지켜야 했다.

실제 지금까지 행보는 좋다. 우선 내부 FA 이준영과는 총액 12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시즌 연속 50경기 이상을 출전하며 불펜에서 큰 힘이 됐다. ‘대투수’ 양현종과도 계약기간 2+1년에 총액 45억원 규모의 계약에 성공했다.

외국인 전력 역시 유지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는 일찍이 200만달러에 재계약을 완료했고, 최

근을 시즌 팀 내 최다 11승을 거둔 아담 윌러와의 재계약 소식 또한 전했다.

이제 KIA에게 남은 숙제는 조상우뿐이다.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한 조상우는 올 시즌 72경기 6승 6패 60이닝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기록했다. 팀 내 가장 많은 홀드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책임졌다. 구위 저하로 시즌 중간 기록을 겪긴 했지만, 필승조로 꾸준히 등판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또 지난 8월31일 kt위즈전 이후 11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는 등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대했던 수준의 투구는 아니었지만, 팀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KIA 입장에서 2026 신인드래프트 1·4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10억원까지 내주며 영입한 만큼, 놓치기 아까운 자원이자.

KIA는 그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조울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조상우의 이적은 쉽지 않다. 그는 올해 FA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다. 조상우를 영입하는 타 구단은 원소속팀에 직전 연봉(4억원)의 200%와 보호선수 20인 외 1명, 혹은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조상우에게 확실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영입 시도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KIA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조상우로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해를 넘기면 곧 스프링캠프 다가온다. 출발 전에 계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선수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입지가 확실하지 않은 조상우기에 더욱 그렇다.

올해 KIA는 핵심 전력 누수로 큰 아픔을 겪었다. 타선에서는 사실상 리빌딩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했다. 그렇기에 적어도 마운드는 안정돼야 한다.

KIA가 조상우와의 계약을 잘 마무리하고 온전한 마운드 전력으로 새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 조성…도민 체감형 미래 열 것”

전남도체육회, 제60차 이사회서 ‘도약하는 100년’ 비전 선포

2026년 체육정책 방향·예산·제도 개선 심의…사업 탄력 기대

전남도체육회가 2026년을 대비한 전남 체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9일 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체육회 제60차 이사회’에서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전남 체육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도체육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전

남체육 80년, 도약하는 100년’을 제시하며, 전남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중장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도체육회 임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체육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을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 제3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결과, 제3회 전국스

포츠클럽교류전 개최 성과, 2025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 추진 결과 등 올해 추진된 주요 체육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26년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계획,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현황, 2026년도 우수선수 및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계획, 2025년 전남체육인재육성성장학기금 장학생 선발 계획 등 향후 전남 체육의 중장기 운영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이 보고됐다.

또 회원종목단체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남체육인재육성성장학기금 규정, 수탁 도립체육시설 운영 규정 등 각종 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전남도체육회가 2026년을 대비한 전남 체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7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차 결정 등 주요 행정·재정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6년에는 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6억7000만원 증액돼 전남 체육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선수 육성·생활체육 활성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체육이 걸어온 80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남 체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한국 야구, 외국 베팅사이트서 WBC 7~8위 평가

우승팀으로 미국 예상…일본 2위·대만 13~14위

외국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을 7~8위권 전력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자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WBC 조별리그 C조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

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개최되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 야구는 WBC에서 2006년 3위, 2009년 준우승으로 선전했으나 2013년과 2017년, 2023년 최근 세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조별리그 관문을 넘지 못했다.

외국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2026년 WBC 본선에 참가하는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우승 예측 베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A조에는 푸에르토리코, 쿠

바,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가 편성됐고, B조에서는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이 경쟁한다. D조에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가 들어있다.

윌리엄힐, 벳365, 드래프트킹 등 주요 베팅 사이트들이 지목하는 ‘우승 후보 1순위’는 30일 현재 모두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 대회에 예뻐 저지(뉴욕 양키스), 칼 롤리(시애틀 매리너스),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필리스), 태릭 스쿠벌(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폴 스킨스(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등 메이저리그(MLB) 핵심 선수들을 불러 모아 최강 전력을 꾸렸다는 평을 듣는다.

윌리엄힐은 미국의 우승 배당률을 11/8로 책정했고, 벳365는 2.2대1, 드래프트킹은 +140으로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했다. 윌리엄힐

의 경우 미국 우승에 1달러를 걸어 적중하면 2.38달러를 받게 된다.

‘우승 후보 2위’도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합류가 예정된 일본으로 의견이 모였다. 일본은 윌리엄힐 11/4, 벳365 4.4대1, 드래프트킹 +300의 배당률을 보인다.

이어 이 베팅사이트 3곳은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멕시코 순으로 3~6위 예상도 일쑤였다. 이 나라들은 MLB 선수들을 다수 배출해 강한 전력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윌리엄힐 (25/1)과 드래프트킹 (+3천 500)에서 단독 7위, 벳365에서는 41대1로 캐나다와 함께 공동 7위 전력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C조에 편성된 다른 나라들은 윌리엄힐 기준 대만이 66/1로 13위, 호주 80/1로 15위였으며 체코는 100/1로 니카라과, 영국, 브라질과 함께 최약체로 평가됐다. 벳365도 대만 101대1로 14위, 호주 151대1로 17위, 체코 201대1로 18위 순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올해 지출 줄이고 성적 올랐다

연봉 총액 74억 소비…올 시즌 K리그1 7위 달성

프로축구 광주FC가 전년 대비 연봉 지출액을 20%가량 줄이고도 리그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2025시즌 K리그1 11개 구단(김천상무 제외)과 K리그2 14개 구단의 선수 연봉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연봉 현황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출전·승리·공격포인트·기타 옵션 등)을 더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수당에는 K리그와 코리아컵, AFC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됐다.

산출 대상에는 2025시즌 전체 기간 동안 각 구단에 한 차례라도 등록된 모든 선수가 포함됐다. 시즌 중 입단하거나 퇴단한 선수는 실제 소속 기간에 따라 비례 적용했다. 예를 들어 시즌의 절반만 소속된 경우 0.5명으로 계산했다.

올 시즌 K리그1 11개 구단이 지출한 연봉 총액은 1368억1306만6000원이었다. 구단별로는 울산

이 206억4858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201억 4141만9000원, 대전이 199억3138만8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는 올해 연봉 총액으로 73억 7564만6000원(1인 평균 2억1275만9000원)을 지출, K리그1 11개 구단 가운데 9번째로 적은 지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96억6198만9000원) 대비 23.7%(22억8634만3000원) 감소한 수치다.

그럼에도 광주의 성적은 올랐다. 지난해 K리그1 9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K리그1 7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실익과 성적을 모두 챙긴 셈이다.

현재 광주는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제재가 예정된 상황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광주에 1년간 선수 영입 금지와 3년간의 징계유예 처분을 통보했다. 광주가 2027년까지 완전자본집시 해소와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징계가 적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